

경제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 타결 기대감

임금삭감·상여금 반납 등 핵심쟁점 제외 38개항 합의
노조, 31일까지 잠정합의 실패뎀 전면파업 돌입 경고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상 개시 56일 만에 핵심 쟁점을 제외한 38개항에 합의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노사가 관심사다. 지역 사회는 이번 38개 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핵심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도 기대하고 있다.

하다는 것에 공감.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정리하고 채권 단과 워크아웃 양해각서 체결 시한이 바빠 다가가 시간이 없다"며 "노조 설명회·찬반 투표 등 추후 거쳐야 할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31일까지는

잠정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7일 확대 간부들이 경고성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31일 자정까지 노사 잠정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정문 앞에서 파업출정 집회를 하고 있다.

금호산업 상장폐지 면해

채권단 2조5천억 출자전환

금호산업 이사회가 출자전환 안건을 가결함에 따라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 26일 오후 7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2조5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오는 31일까지 단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다음주 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할지 금호산업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주식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출자전환 방안과 함께 2014년 말까지 매출전환방안과 재무적 투자자의 채권을 상환유예하고, 3천6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증가·새터민 만남의 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종식)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미취업 북한이탈주민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이 행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전남 중소기업에서 열리며, 지역 중소기업 20개사가 참여해 취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상담·개별 면접 등을 통해 구인·구직을 주선한다. 특히 취업 면접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를 위해 메이크업과 이력서에 사용할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 작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062-360-9142.

LH 청년인턴 250명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청년인턴 250명을 채용한다. 이중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할 인원은 14명이다.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신규 졸업자만 29세 미만의 미취업자 지원할 수 있다. 취업이 이미 결정돼 임용 대기 중이거나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서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각 지역본부 및 사업단 채용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증시 포커스

기업 실적개선 기대심리
주도주 조정엔 분할매수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 행진에 기업들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에 들어서서 금주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장의 핵심 동력은 실적개선에 달려 있다. 실적개선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하루 평균 순매수액도 2천600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매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주(3월 전체 순매수의 37%)를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 및 대형 조선주도 구성되는 운수장비 업종(3월 전체 순매수의 12%)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오는 31일에는 2월 중 국내 산업활동동향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선행지수의 두 달 연속 하락 여부 및 동행지수의 상승세 유지 여부

를 눈여겨 봐야한다. 지수 1,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주는 기술적인 저항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수급 및 펀더멘탈 환경의 개선세를 감안하면 기술적인 조정을 매수대응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권한다.

또 최근 종목별 양극화 흐름이 외국인에 주도하는 수급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주도주에 대한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동아스틸, 광양에 1천억원 투자

광양시와 명당지구 제2공장 건설 협약 체결

국내 유일의 극후방 가공업체인 동아스틸(주)이 광양에 1천억원을 투자, 제2공장을 건설한다.

광양시는 29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동아스틸(주)과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2단계)에 강관 제조 및 후판가공 열처리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2012년 6월 완공될 광양공장은 총 면적 7만501㎡에 1천억원을 투자하

게 된다. 직접 고용 300명에 협력사를 비롯한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모두 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동아스틸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을 원재료로 플랜트 구조용 강관, 유정용 강관, 조선용 및 플랜트용 후판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업체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정수기자(jpy4079@

지역 백화점 '봄이 왔네'

내달 2일부터 세일 ... 기획전 등 매출 신장 총력

지역 백화점들이 다음달 2일부터 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때늦은 추위가 이어지면서 봄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했던 백화점들은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해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롯데, 현대 등 지역 백화점들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세일 기간 동안 브랜드 및 품목별로 10~30%까지 할인판매하고 다양한 증정품을 내걸고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개점 80주년 기념 특별 기획으로 봄 정기세일동안 '80대 바겐스타' 상품을 선정해 최저가 판매에 들어간다.

'80대 바겐스타' 상품은 바이어들이 선정한 특별기획상품으로 자켓, 팬츠, 원피스, 핸드백, 선글라스, 이발 등 각 장르의 대표적인 봄 상품이 망라됐다. 일부품목은 정상상품으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선글라스 기획전인 아이웨어 페어전을 비롯해 다양한 기획전이 진행

된다. 세일 기간 중 'Sale in Sale'을 비롯해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주요 상품을 정상가보다 10~50% 할인판매하는 '봄 프리미엄 세일'을 마련한다.

행사기간 동안 리바이스, 게스 등 유명 진브랜드가 참여해 인기품목을 할인판매하는 '롯데 청바지 대전' 등 다양한 기획전이 열린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10년 더 젊게'라는 주제로 브랜드별로 10~30% 할인행사를 벌인다. 수입 의류, 아웃도어, 골프 품목 행사 등 젊은층을 겨

냥한 상품들이 대거 출시된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상 저온과 강설로 봄 상품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백화점들이 세일을 맞아 매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Financial data box showing KOSPI index at 1,697.72 (+11.61), KOSDAQ index at 52.66 (-2.92), and interest rate at 3.84% (+0.0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유)코리아랜드' with a list of job positions and requirements.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제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with multipl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